# "내가 적임" 9명 출사표 … 더민주-국민의당-무소속 3파전

| | | | | | | | | | |
|---|---|---|---|---|---|---|---|---|---|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국민의당 | 국민의당 | 국민의당 | 국민의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무소속 |
| 이름 | **홍진태** | **김성숙** | **김성환** | **방정현** | **안재경** | **오형근** | **임홍채** | **문팔갑** | **양혜령** |
| 나이 | 58 | 56 | 54 | 49 | 57 | 53 | 53 | 61 | 53 |
| 약력 | ·전) 광주시 문화정책실장<br>·전) 광주시 경제통상국장 | ·현) 동구의회의원<br>·현) 박주선국회의원 조직특보 |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br>·전) 국무총리실 국정과제관리관 | ·현) 당 정책위부의장<br>·현)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 ·전) 경찰대학장<br>·전) 광주지방경찰청장 | ·현) 대동고 장학문화재단 이사장<br>·현) 조선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 ·현) 호남발전연구원장<br>·현) 한국NGO총연합 중앙연맹 상임대표 | ·전) 화순군의원<br>·전)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본부장 | ·현) 광주시 동구 치과의사 회장<br>·전) 광주시의원 |

## 더민주 홍진태 전 광주시 투자고용국장 후보자 결정

## 국민의당 6명 예비후보 등록 … 공천경쟁 본선보다 치열

## 양혜령·문팔갑 무소속 출마 선언 후 표밭 다져

### ■누가 뛰나

광주시 동구청장 재선거는 그야말로 안갯 속 판세다.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경쟁은 물론 최종 본선에서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라는 얘기다. 아직까지 공천 룰조차 정해지지 않은 국민의당 후보가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선거 판세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무소속 후보까지 모두 9명의 후보자들이 출마 선언을 한 뒤 표밭을 누비고 있다.

14일 현재 더민주 후보는 정해진 상황이지만 국민의당 후보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소속 출마예정자는 모두 6명으로, 본선에 앞서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상된다.

이 선거구는 광주·전남지역 다른 지역구와 달리 '더민주·국민의당·무소속' 후보간 치열한 3파전이 전망된다.

특히 유력 주자들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이던 양혜령 후보가 지난 11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구 지형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양 후보가 국민의당 경선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더민주 후보와 일대일 대결 구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의원-구청장' 후보간 러닝메이트 조합도 변수다.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재선거 승패도 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구도심 재개발 문제, 노인 복지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 현안문제도 이번 재선거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각 후보자들이 지역현안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도 지켜볼 대목이다. 또 그간 동구청장 선거에서 공무원 출신 후보들이 연이어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후보자들의 출신 성분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홍진태 전 광주시 투자고용국장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된 뒤 지역 표밭을 다져가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당내 경선에서 임택 광주시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강진 출신인 홍 전 국장은 광주시 내무국 계장과 관광과장·총무담당관·경제통상국장·문화정책실장·서구 부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행정 공무원 출신인 그는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또,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하면서 구청장의 사퇴로 빚어진 구정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문화·교통과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구를 전국 최고의 구(區)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금남로·충장로 ·구성로 등 구도심 상권 활성화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예술특구발전방안 추진 ▲노인복지정책 강화 ▲지산유원지 활성화 등 지역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한다.

◇**국민의당**=김성숙·김성환·방정현·안재경·오형근·임홍채 후보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국민의당 공천 경쟁이 본선보다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후보로 등록한 김성환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은 보성출신이다. 전남도청과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국정과제관리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거치며 26년을 공직에서 근무한 정통 행정관료다.

그의 최대 강점은 인맥이 넓다는 점으로, 주변에선 정통 행정관료 출신답게 공백상태인 구정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설과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상향 지원, 생활임금제 도입, 기업유치 및 수익사업 발굴 등 구 재정 건실화를 통한 동구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안재경 전 경찰대 학장도 국민의당 후보로 등록한 뒤 바닥을 다지고 있다. 장흥 출신인 안 후보는 서울시청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서울 동작경찰서장·충남지방경찰청 차장·경찰수사연구원장·전남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 공무원 출신인 그는 인맥이 넓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그는 행정과 경찰업무를 두루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동구 조직을 안정화한 뒤 '누구나 살고 싶은 동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역별 맞춤형 치안 서비스와 관련기관 협업 및 안심부스 설치,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문화전당 이용 동구주민 할인제도 도입 등에 전력을 쏟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본선 경쟁에 앞서 같은 당 후보와 예선 과정에서 야기된 파열음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는 그가 풀어야할 과제다.

오형근 조선대 의과대학 외래교수도 국민의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민주당 중앙당 보건의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장, 안철수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등을 지냈다.

그의 최대 장점은 동구 토박이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동구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새 희망을 심는 주치의가 되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청년실업해소와 5개 재개발구역 맞춤형대책 수립, 총장축제 킬러콘텐츠 개발, 통합안전센터 구축, '아가만'(아름다운 가정만들기) 정책 시행 등을 통해 동구의 명예와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성숙 동구의회 의원도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각오로 출사표를 던졌다. 화순 출신인 그는 박주선 국회의원 조직특보와 동구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 위원,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동구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극복, 도시 재생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정현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민과 스킨십에 나서고 있다. 그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과 정책네트워크 내일 정회원, 광주경실련 집행위원, 한가람경제연구소 대표 등을 맡고 있다.

도시재생 전문가인 그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지재생사업을 통해 동구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주변 인프라 구축과 백세시대 복지정책 구현을 포함한 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재생 선도지역·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지역행복생활권역 등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홍채 전 민주당 사무처장도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지역 표밭을 다지고 있다. 그는 호남발전연구원장과 한국NGO총연합 중앙연맹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무소속**=양혜령 전 광주시의원과 문팔갑 전 화순군의원 등 2명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양 후보는 지난 11일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내정설 의혹을 주장하며 국민의당을 탈당했다.

광주 출신인 그는 백화포럼 공동대표와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공동대표, 광주시동구치과의사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양 후보의 최대 장점은 조직력이 매우 탄탄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당내 경선과 무소속 후보로 동구청장에 출마하면서 지역민과 유대감을 잘 형성해온 점도 장점이다. 또 그의 이번 도전이 세 번째인데, 3번 도전을 하면서 고정 지지자들이 있는 점도 강점이다.

그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창조적 문화도시 건설 ▲안전·안심·안정 동구 지향 ▲주차문제 해결을 통한 동구상권의 활성화 ▲문화관광·휴양형 의료관광산업의 개척 ▲사회적경제 시스템 강화로 사회적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동구 위상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문팔갑 전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본부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출마선언문에서 "동구가 과거 광주 정치1번지의 영화를 뒤로하고 인구감소와 상권쇠퇴 등으로 떠나가는 동구가 됐다"면서 "지방행정 방향을 주민위주로 바꿔 돌아오는 동구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을 위해 행정의 방향을 주민위주로 바꾸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관전 포인트

## 국회의원-구청장 후보간 러닝메이트 조합 변수로

광주시 동구청장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무소속' 후보간 3자 대결구도가 형성돼 있다.

애초 더민주-국민의당 후보간 일대일 구도 양상이 전망됐으나 국민의당 양혜령 후보가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재선거 판세는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양 후보의 탈당이 과연 자신을 포함해 어느 후보에게 득(得)이 되고 실(失)이 될 것인지 여부는 이 선거구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선 어느 후보가 유력 주자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국민의당 공천경쟁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애초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7명이었으나 양 후보가 탈당하면서 현재 예비후보는 모두 6명.

이 같이 당 공천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일부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면서 상대 당 후보에게 득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구청장' 후보간 러닝메이트 조합도 지켜볼 대목이다.

국회의원과 구청장 선거가 한 날 동시에 치러지는데, 후보간 조합이 잘 맞는다면 역대 선거에서 보지 못한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역풍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러닝메이트 조합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선거구 특징

## 대부분이 구도심 … 재개발·노인복지 등 현안

동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구도심이다.

전남도청과 전남지방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무안으로 옮겨가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같이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라 행정동은 물론 인구수도 광주 5개 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

행정동은 동명동·계림1동·계림2동·산수1동·산수2동·지산1동·지산2동·서남동·학동·학운동·지원1동·지원2동 등 13개 동이다.

최근 일부 지역은 재개발 등이 시작되고 있지만 주거환경과 생활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이 상당하다.

특히 청·장년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은 편인데, 이 때문에 복지 관련 및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민원이 많은 편이다. 자치구간 개발 격차 해소 등이 지역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인구 수는 모두 9만9776명으로 19세 이상 유권자 수는 8만5179명이다.

동구의 주요 현안으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추진을 포함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노인 및 청·장년 일자리사업, 무등산 연계 관광산업, 구도심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